

합천군 초계면 계남지구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준공

기사입력 : 2024-10-08 14:10:53

합천군 계남지구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운영위원회는 8일 계남복합문화센터에서 화합의 장 행사를 개최했다. 이날 행사에는 김윤철 군수, 정봉훈 군의회 의장, 장진영 도의원, 김문숙, 이종철, 이태련 합천군의원, 박인식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장 등 주요 내빈을 비롯해 100여명이 참석했다.

계남지구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했다. 주요 사업으로는 계남복합문화센터 조성, 계남초등학교와 어르신마을관리소 리모델링, 유하천 생태보행로 조성 등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경관 개선이 이뤄졌다. 또 주민 교육 및 동아리 교육 등 지역역량강화사업도 함께 추진됐다.

계남복합문화센터는 폐교된 계남초등학교 부지를 정비해 건립됐으며, 초계면 계남지구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.

김윤철 군수는 “계남복합문화센터는 군과 농어촌공사, 운영위원회가 한마음으로 이뤄낸 소중한 성과”라며 “계남복합문화센터가 화합의 중심으로 자리잡아 초계면이 웃음과 활력이 넘치는 곳이 되길 기원한다”고 말했다.



조윤제 기자 cho@knnews.co.kr

